정읍서 '누리호 발사 체험' 어때요

시, 첨단과학관 특별전시회
누리호 발사 통제 시스템 체험
기후변화 주제 과학 콘텐츠 등
이달말까지 시민 무료 관람

정읍첨단과학관에서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과학체험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누리호 발사 체험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신정동에 소재한 정읍첨단과학관에서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과학체험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정읍시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관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022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시콘텐츠 공동 활용 순회 전시형 체험행사다.

이번 체험행사는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실제 발사 운용 과정을 알아보고, 기후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과학 현상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누리호 발사 임무 체험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발사대 시스템과 발사통제 시스템이 간략하게 구현된 공간에서 누리호의 발사과정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또 기후 위기 체험은 '김홍도의 논갈이', '뭉크의 절규'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화를 디지털로 제작, 기후 환경에 따라 그림 일부가 사라지거나 색이 바뀌는 등의 과학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는 콘텐츠다.

전시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거나 체험할 수 있다.

체험 후 과학 퀴즈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김현희 정읍시 미래첨단산업과장은 "이번 특별전시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첨단과학관에서 과학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생활 속 실천에 앞장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문화유산' 지정 추진

고창군, 학술조사 용역 보고회

고창군이 '손화중 도소' 등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최근 군청에서 '고창동학농민혁명 비지정문화재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동학농민혁명 3대 지도자인 손화중이 동학을 포교했던 성송면 괴치도소·양실거소와 손화중이 체포되었던 부안면 피체지, 동학농민군 숙영지였던 여시뫼봉 등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유바다 교수(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가 그간의 조사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연구진의 보완·수정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위해 무장기포지를 비롯해 전봉준 장군 태생지 정비 등 관련 유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운기 고창군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해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진윤식 이사장은 "손화중 유적뿐만 아니라 손화중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홀몸어르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화재·활동량 등 모니터링 장비 300대 추가 보급

고창군이 독거노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300대 추가 보급해 현재까지 648대가 설치됐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활동량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차세대 장비를 독거노인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등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실제로 올해에만 37건의 응급신고가 접수돼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겨울철 기존 설치된 장비와 신규장비를 전수조사해 작동여부를 일제점검하고 어르신들에게 작동법을 안내하는 등 대상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들이 지역 어르신을 찾아 안심서비스를 점검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남원시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남원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올해 6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농가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이 농가의 선착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희망농가는 예산 소진 전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와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60~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며 축사시설물도 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남원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 전체 보험 가입액의 85%를 지원(농가당 최대 140만원 한도 내)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가 해당된다.

보험가입은 취급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두 달간 무료 시범 운영

고창군이 해리면 동호해수욕장 해송림에 조성한 '동호 국민여가캠핑장'을 두 달여간 시범 운영한다.

동호 국민여가캠핑장은 30면 규모의 캠핑사이트와 주차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앞서 고창군은 해송림에 캠핑족들이 몰리면서 악취와 쓰레기, 소음 등의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해 캠핑장 조성에 나섰다.

고창군 관계자는 "은은한 소나무 향이 전해지는 캠핑장에서 편히 휴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볏짚 환원 사업'으로 토양 살리기

고품질 쌀 생산·비료 절감 기대

정읍시가 친환경 벼 재배지의 유기물 함량 증가 등 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볏짚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

볏짚 환원 사업은 농가가 벼 재배농지에 볏짚을 잘게 절단해 농경지에 환원, 가을갈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토양 유기물의 함량을 높여 벼의 생육을 활성화하고 병해충을 방지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의 절감 효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다.

시는 최근 지역 내 경종 농가 3942필지 966ha를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0.1~3ha이며, 지원 금액은 1ha당 20만 원이다.

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 특성상 필지수가 많아 읍면동 담당자가 현장점검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자진 포기 기간(오는 11월 2일까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 합동 점검을 통해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12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자진 포기 없이 볏짚 환원을 하지 않아 행정력 낭비를 유발한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조사업(농기계, 육묘장 지원 등)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잦은 비료 사용은 생산비 증대뿐 아니라 토양의 산성화로 농작물이 제대로 생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볏짚 환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